

보험업계 최대 격전지 ‘보장성 보험’... 상품 차별화가 해답

내년도 ‘제3보험’ 경쟁 격화 전망
생·손보사, 보장성보험 판매집중
CSM 확보의 핵심상품으로 부각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 관건



첫 지피티가 생성한 상품 경쟁력 관련 이미지.

/첫 지피티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상품 경쟁력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신계약의 향방이 상품 차별화를 통한 상품 경쟁력 제고에서 판가를 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쟁 과열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양 업계는 올해 초부터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을 이어온 바 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업계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지난해 사회계제도(IFRS 17) 도입 후 보험계약자산(CSM)이 보험사 미래 수익 지표로 여겨진다. 보장성 보험은 CSM 확보에 유리해 보험사들의 주요 판매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등 제3보험 영역을 확대해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면서 연이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

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9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31곳의 9월 말 누적 당기순이익은 13조 39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5624억원(13.2%) 증가했다.

손보사는 8조 9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8억원(13.6%) 증가했다.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경우 누적 순이익은 6조 6916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생보사는 5조 30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6억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80조 8313억원으로 4조 3724억원

(5.7%) 늘었고 그 가운데 보장성보험은 13%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SM 확보를 위한 장기 보장성보험 집중 판매로 보험사의 실적 호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보장성 보험 확보 전략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매출이 축소해 제3보험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 시장 경쟁 과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가정

하면 5년납 상품의 경우 손실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현금유출액이 증가해 CSM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납 종신 7년납의 경우 CSM배수가 3~4배인데 비해 제3보험의 경우 15~20배로 높아 생보사들이 제3보험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생보사가 주력으로 판매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요양 및 치매 간병보험 등 제3보험은 이미 손보사가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므로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 과열에 따라 상품 차별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내년 신계약의 향방은 상품 경쟁력을 앞세워 보험업계의 특권인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내년 신계약의 향방은 전속 설계사 비중, 보장 시점, 보장 횟수 등 상품 경쟁력을 높여 배타적 사용권을 많이 획득한 보험사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고맙다 트럼프’ 비트코인 신고가 10만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했다.

5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7.10% 급등한 10만 282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2조 200억달러로 집계되면서 2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비트코인 상승배경에는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2~2008년 SEC 위원을 지낸 앳킨스는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 ‘친가상화폐 인사’로 꼽힌다. 폴 앳킨스는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개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에만 약 40% 급등했고, 올해만 상승률이 1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꿀 매물 ‘온비드’에서 쉽게 찾으세요”

캠코, 압류·국유재산 공매 플랫폼
비대면 입찰 가능, 절차도 간소화
부동산 입찰 시 현장 상태 확인을



온비드를 통한 공매 참가 방법.

/캠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공매(공개매각)’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가 주목받고 있다.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비대면 입찰이 가능하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온비드’를 통해 공매된 물건의 누적 거래금액은 총 1113조원에 달한다. 올해 3분기에만 온비드를 통해 1826건의 압류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평균 낙찰가액은 7950만원, 감정이 대비 낙찰가율은 65.8%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는 각종 압류재산·국유재산을 공매하는 플랫폼이다. 법원 경매와 달리 인터넷·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 입찰이 가능해 경매 초보자도 접근하기 좋다. 또한 법원 경매와는 달리 감정이 5000만원 미만의 부동산 비중도 큰 만큼 소액으로도 경매에 도전할 수 있다.

예비 입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압류재산 공매다. 적게는 10~20%,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차량·증권 등을 낙찰받을 수 있어서다.

온비드에서는 매주 유찰 여부에 따라 최저입찰금액이 지정된다. 최소 하한가는 최초 감정가의 50%다. 입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압류 부동산 공매에서는 토지가 60~65%, 단독·연립

주택이 65~70%, 아파트가 감정가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동산의 경우 물품별로 낙찰가액 차이가 크다.

부동산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사전 방문해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도 공매 물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변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만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압류 부동산 입찰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에 앞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만 한다.

공공시설물 임대·공공기관 불용품에 대한 공매도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공공시설물 임대는 공립 학교 매점, 공공기관 소유 건물 내 사무실, 공용주차장 운영 등에 대한 권리다. 일반 임대와 달리 업종에 따른 관리금이 없고, 공공시설물인 만큼 고정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임대료 또한 전체 매물의 60% 이상이 연 1000만원 이하로 저렴해, 소규모 창업에 적합하다.

불용품 공매는 더는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유 물품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절차다. 각종 가구나 컴퓨터·노트북 등 전자기기부터 관용 차량, 공공기관 소유 콘도·골프 회원권 등 다양한 물품이 출품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물품인 만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실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비중도 크다.

한편, 캠코는 최근 온비드의 개선에도 돌입했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훨씬 간략하지만, 아직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이용자가 체감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비드는 현재 웹·모바일 환경 개선에 돌입했고, 내후년까지 개선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협중앙회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전면 중단

신협중앙회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대상 규제를 강화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전국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수도권으로 한정했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은 잔금대출을 포함해 모두 취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연내 인출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신규취급도 제한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은 가계대출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서울 집값 37주째 ↑... 매수심리는 7주째 ↓

아파트 매매값 전주대비 0.04% ↑
서초그랑자이 6개월새 3.4억 경총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7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7주째 하락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오르면서 37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6%→0.06%)가 공덕·창천동 역세권, 중구(0.07%→0.06%)는 신당·황학동, 종로구(0.08%→0.07%)는 무악·송인동 중소형 단지, 용산구(0.08%→0.05%)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광진구(0.05%→0.06%)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09%→0.04%)는 서초·잠원동 주요단지, 양천구

(0.05%→0.05%)가 목·신정동, 강남구(0.13%→0.12%)는 논현·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영등포구(0.06%→0.05%)는 신길·여의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공덕파크자이’는 10월 전용면적 121㎡가 21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19억원) 대비 2억 5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그랑자이’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34억 2000만원에 거래되면서, 6개월

만에 3억 4000만원 올랐다.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2로 전주(99.5)보다 0.3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7주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지원 기자 jiw13@